

**현대교회건축에 나타난 지역주의적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xpressional Characteristics of Regionalism in Contemporary Church Architecture

조경수* / Cho, Kyung-Soo

Abstract

The study is intended to clarify the ideologies and principles applied to the formative expression of church architecture which is contained both the God and human.

After modern times, from the result of study of modern architectural movement, all of architectural ideology have not been developed with the church architecture. Some of architectural concept have been the foundation of modern church architecture.

Among them, focusing the area which is developed the form of the church architecture with the regional architectural expression - America, Northern Europe and Latin America - the expressional characteristics have derived that the church architecture have specific characteristics by the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from the influence of the regionalism.

After all, regionalism-church architecture which describes recognized and behavioral organism and recognize the kind of the regional tradition and show regionalized formation shows the expressional characteristics of modern church architecture.

키워드 : 교회건축, 지역주의, 표현특성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인간의 생활을 대변하는 건축 중에서 교회건축은 신의 모습-신을 향한 인간의 모습-과 인간의 모습-인간의 행태적인 모습-을 모두 지니고 있으며 역사이래 각 시대별로 독창적이고 근본적인 공간개념과 형태를 창조하고 신앙생활을 표현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서양 건축사를 대변했던 교회건축은 근대이후 더 이상 양식사를 주도하는 위치에 서지 못하였으며 어떠한 표현적 특성을 정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근대이후의 소멸된 교회건축사를 정립하고자 하는 대전제를 가지고 현대건축에서 파악될 수 있는 표현적 특성 중에 하나인 지역주의의 개념을 바탕으로 현대교회건축의 표현적 특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을 가지게 되며 이러한 이유는 지역주의의 개념이 기독교 신앙이 토착화와 지역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교회건축의 표현적 특성과 필연적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우선 신교(Protestant)와 구교(Catholic)의 구분에 있어서 신학과 교리적인 측면, 소명과 기능에 있어서의 차이점은 인정되나 역사적인 변천과정과 다원화되고 있는 현대건축의 표현문제를 규명하고자 할 때 구분적인 해석은 의미가 상실된다. 그러므로 신교와 구교의 구분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근대이래 수많은 교회건축 중에서 주제의 표현에 대해 맥락적인 중요성이 내재된 것을 선택하여 문헌적 분석을 원칙으로 하고 이들의 표현적 특성을 정리한다. 표현특성을 도출함에 있어서는 건축가 개인 또는 집단화된 사상적 개념을 적용하여 표현개념과 형태의 차원에서 논의한다.

2. 지역주의 건축의 배경과 개념

2.1. 지역주의 건축의 배경

근대 건축운동의 주체인 유럽 선진국가의 다양성과 비교할 때 그 차이점이 드러나는 토착적 건축은 1) 국가의 차원을 넘어

* 정회원, 남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전임강사, 공학박사

** 본 논문은 2000년도 남서울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1)본 논문에서 토착적 건축이라 함은 지역주의의 의미와 동일하나 지역주의라는 개념이 20세기 중반에 정립되므로 지역주의라 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지역주의의 배경적 의미로서 토착적 건축이라 기술하였음.

통일성과 보편성을 추구하는 근대건축운동이 자국의 문화적 특이성을 상실시킬 뿐이라는 인식에서 표출된, 즉 민족성과 문화를 확실히 구별하여 근대화 과정에서 스스로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독자적인 표현양식을 획득하고자 하는 성향이였다. 하지만 이는 근대건축운동에 대한 대립명제(anti-thesis)가 아니며, 또한 지역 고유의 풍토와 개성을 강조하는 편협한 국수주의적 경향이나 지역의 과거 역사에 의존하려는 복고주의도 아니다. 토착적 건축의 경향은 전근대의 문화적 전통을 모범으로 하여 자국의 근대화 과정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라는 면에서 중세를 모범으로 한 19세기 유럽의 고딕 부흥이나 영국의 예술공예운동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결국 토착적 건축은 근대화 과정 속에서 모더니즘을 무조건 배격하거나 부정하지 않는 보완관계로 파악한다는 면에서 그 의의가 마련되었다.

토착적 건축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는 유럽의 통상적인 건축언어가 지니는 '형태'가 아니라 건축이 풍토나 민족과 관계되어 나타나는 '정체성 identity'이라 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이러한 개념은 당시 절충주의의 흐름을 참작하는 양식적인 해석으로는 설명될 수 없으며, 또한 근대운동의 연장선상으로 포착되는 경우에도 모더니즘 이론에 입각한 구조적·기능적 측면으로의 해석 역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2.2. 유기적 건축과 민족적 낭만주의 건축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지역적 정체성을 근대화의 움직임 속에 반영시킨 지역으로는 19세기와 20세기 전환과정에서의 미국과 북구 유럽의 건축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²⁾, 다양한 건축관에 기본을 두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과 결부된 이론상의 공통점은 명백하지 않으면서도 재료로부터 나오는 근원적인 형태를 모색하고, 대지와 건축을 하나로 융합하며, 보편의 진리로서 인간의 삶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건축의 본질을 찾으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영국으로부터의 정치적 독립과 함께 당시 팽배한 유럽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롭고 새로운 건축양식의 필요성을 자각한 미국은 제퍼슨(T. Jefferson)의 자연주의와 소로H. D. Thoreau의 개인주의를 근간으로 한 민주주의, 전통적 가옥건축양식을 근대적으로 계승한 싱글 스타일 등을 바탕으로 미국의 문화적 독립성을 암시하는 유기적 개념으로 승화시켰으며, 이는 서해안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한 Bay Region Style의 본질로서 작용한다. 하지만 유럽으로부터 이식된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논리가 필연적이었기에 미국의 유기적 개념은 건축의 보편적인 접근방법을 토대로 지역적 정체성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요약된다.

반면에 당시 경제적, 문화적으로 후진성의 수준에 머무르던 북구 각국은 근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문화적 전통에 바탕을 둔 새로운 자기표현을 획득해야 한다는 인식의 표출로서 민족적 낭만주의(National Romanticism)의 개념을 성립한다. 이는 과거 전통에 대한 동경을 내포한다는 면에서 자칫 복고주의로도 인식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근대화를 향한 강한 열망과의 균형을 취한 근대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즉 예술공예 운동과 빈(Wien)식 근대주의의 영향이 독자적인 민족의식을 통하여 독특한 조형으로 변안되어 정착된 흐름이라 할 수 있는 민족적 낭만주의는 민족의 기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조형의 발굴, 예술공예운동을 바탕으로 한 수작업의 복권과 민족문화에 대한 응용, 새로운 소재에 대한 관심과 장식적인 전용 등을 주된 표현특성으로 하며, 쉐켈(K. F. Schinkel)의 낭만적 고전주의에서 유래한 도리아적(Doricist) 감수성³⁾을 흡수하면서 근대적인 형태로 발전한다.

민족적 낭만주의의 개념이 근대 초기 유럽에서 차지하던 의미는 본질적으로 북구지역에만 한정되지 않은 범위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즉 유럽 중심국가에 대한 주변국의 지역적 정체성의 확립을 모색하는 스페인, 동유럽과 스코틀랜드 등의 종래 아르누보 범주에 포함되는 건축가들의 작품경향도 민족적 낭만주의 개념이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정치적, 문화적, 민족적 정체성과 근대 세계의 새로운 문화 공동체로서의 동질성을 재건한다는 견지에서 근대 전환기의 토착적 개념은 기본적으로 민족전통을 근대 사회에 재생시키려는 건축운동으로 요약되며, 새로운 민족 정신을 추구하는 일환으로서 현대 지역주의 건축의 타당한 원형으로 정립되어 나아간다.

3. 지역주의적 교회건축의 분석

3.1. 지역주의의 개념과 교회건축의 상관성

지역주의 건축에 대한 디자인 방법론은 개념과 문맥(context)을 조화하여 교합으로서 사물의 정신을 장소의 정신에 연계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산업화의 결과로 사람들이 이동을 많이 함에 따라 환경에 대한 적합한 참조점(reference)을 상실한데 대한 반성과 회의에서 나온 태도이다. '문화와 발전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양자는 대립관계인가 아니면 상보적인 관계인가' 하는 문제에서 보면, 흔히 비서구, 이른바 제 3세계에게 있어서 발전은 전통문화를 희생한 대가로 얻어지는 어떤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즉 오랫동안 지켜온 전래의 가치

2)본 연구의 논지는 당시 미국과 북구지역의 건축 경향을 토착적 개념으로 통합하고자 함이 아니라 다양한 근대적 양상들을 배제한, 단지 교회건축의 근대적 변천과정에서 도출된 지역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3)Frampton, K., Modern Architecture-A Critical History, 현대 건축사(II), 정영철·윤재희 譯, 세진사, 1992, p.359.

와 제도, 생활 양식 등을 포기하는 대신, 서구의 문화를 새로이 수용하는 과정, 혹은 그 결과를 발전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의 경향에 있어서 지역문화의 역할을 강조하고, 문화와 발전이라는 두 가지의 개념은 기존의 통념처럼 적자생존의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상호보조적인 관계이며 문화는 발전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주장이 있다. 즉 특정 지역의 발전은 그 곳에서 형성된 문화논리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개념이다.

지역주의 교회건축의 상관성에 대해 고찰하여 볼 때, 도시는 통합과 끊임없는 변형의 과정을 겪으며, 구조적 역할을 하는 중심적 건물이 그 자체로서 상징적 존재가 되는 곳에서 그 특성과 이미지가 결정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신적 지주와 형이상학적 의미로서의 역할을 하는 교회는 수 천년의 역사를 자극시키고, 현재의 도시에 독특한 기억의 진공상태를 채워주는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교회는 우리 시대를 역사의 기억과 연결시키기 위한 단순한 일상적 삶의 '기능적' 필요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과 일반적 유산의 풍부함에 대한 기억을 연결시킬 수 있는 구조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건축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회란 이미 그것이 위치하는 장소에 종속하는 주위환경과의 관계에 있어 소원하거나 돋보여서는 안되고 그와 같은 환경에 대해 하나의 집약이며 하나의 구현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관념적 요소보다 사회적인 요인을 더 중요시 인식함으로써 반물질주의적이며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윤리관을 내포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지역주의의 개념과 교회건축은 이렇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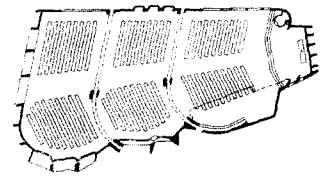
3.2. 북유럽의 교회건축 분석

유럽의 민족적 낭만주의와 도리아적 감수성의 융합으로 나타난 유럽의 지역주의 개념은 모더니즘의 도입 후에도 지속적으로 북구 건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북구 건축에서 두드러진 두 가지의 흐름, 즉 보편성을 추구하는 이성적 전통과 개인의 감성에 의존하는 유기적 전통⁴⁾은 선대 두 전통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대부분의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규범적·자율적 형태에 경도되지 않고 포괄적인 인식을 수용하였으며 그 지역으로부터 나온 설계는 유럽 전역에 걸쳐 영향력이 증가되어 미쳤으며, 20세기 종교건축에 있어서 스칸디나비아의 공헌으로 여겨지는 건축이 나타났다. 이는 전통적인 건축 언어와 아스프룬드(E. G. Asplund)에 의해 예시되었는데 그것은 모더니즘 사이에 위치하는, 즉 독단적인 엄격함이 완화되어



<그림 1> A. Aalto, Vuoksenniska Church, Imatra, 19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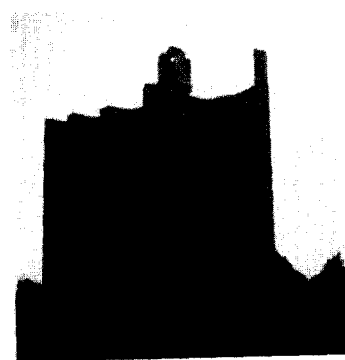


<그림 2> Vuoksenniska Church 평면도

인지-행태적으로 반응한 유기적 접근법이다. 이러한 형태는 알토(A. Aalto)와 시렌 부부(Kajja and Heikki Siren)에 의해 구현되었으며, 비록 독일 교회건축의 발전보다는 혁신적이지 못하였다고 평가되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스칸디나비아와 그 밖의 곳에서 나오는 교회건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간적·심리적 요구사항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역사적·문화적·지리적 전통에 뿌리를 둔 디자인 접근 방식을 통해서 '인간성'이 내포된 건축을 추구하는⁵⁾ 알토(Aalto)는 보크세니스카 교회(1959)와 세이나요키 교회(1960)에서 프로테스탄트적 사상에 기인하는 실용적·가변적 공간구조⁶⁾를 통해 다양한 예배 의식의 규모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형학적이고 유기적인 형태어휘를 구사하여 공간과 형태의 인간적인 규모를 창출한다. 그의 교회건축에서 보이는 균일한 빛의 도입은 북구 지역 환경조건을 세심히 고려한 것이며, 균등한 빛을 얻고자하는 바램은 빛의 경로들에 순응한 것으로서, 단순기하학에 근거한 형태변형이라 할 수 있다.

알토의 유기적 공간과 형태 구성은 피에틸레(Reima Pietilä)의 말미 교회(Malmi Church, 1967)에서 유사하게 재현되며, 칼레바 교회(Kaleva Church, Tampere, 1966)에서 지역적 조건들에 조화롭게 적응하는 '문화적 지역주의의 인간주의적 형태'⁷⁾



<그림 3> R. Pietilä, 칼레바 교회, Tampere, 1966

로 실현된다. 칼레바 교회의 특징은 벽체 표면의 질감으로부터, 그리고 커다란 창문들을 통하여 전해지는 침착하고 밝은 순수성이며, 빛은 초월적인 현상과 바깥세상과의 단절된 성스러움을 창조한다. 또한凹凸의 형태는 고딕의 수직성과 바로크의 역동성을 연상시킴과 동시에 세련된 모뉴멘탈리티를

4) Heathcote, Edwin, Church Builders AD Academy Editions, 1997, p.60. 여기에서 유기적이라 함은 F. L. Wright가 주장한 것, 즉 자연주의, 풍토주의, 지역주의의 모태가 되며 반 고전적, 반 유럽적인 것을 말한다.

5) 길성호, 현대건축 사고론, 시공문화사, 1999, p.277.

6) Heathcote, Edwin, op. cit., p.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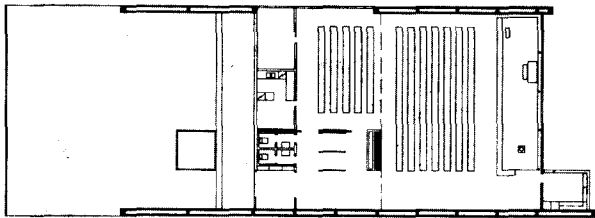
7) 정영수, 북구 근대건축의 거장-레니 피에틸레, 이상건축 9511, p.136.

창조해 내고 있다.

한편 시렌 부부는 공간구성상의 단순성과 솔직하고 직선적인 표현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알토와 근본적으로 입장을 달리 하면서도 핀란드의 자연경관을 반영하고 축조적인 수단을 강조한다는 면에서 지역적 색채가 강한 교회건축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의 오타니에미 예배당(Chapel in Otaniemi, 1957)에서는 모더니즘의 어휘를 사용하면서도 핀란드의 침엽수림을 의식한



<그림 4> K. & H. Siren, 오타니에미 예배당, Otaniemi, 1957



<그림 5> 오타니에미 예배당 평면도

성(聖)스러운 공간을 만들고 있다. 빛과 침묵의 공간은 과거의 종교적 전형에 의존하지 않는 범신론과 고전적 모더니즘, 그리고 최소의 원형적인 건축 어휘를 포함하는 고상한 단순성과 형태 전개상의 급속적 절제성을 강조한다.

벽체의 모듈화 및 대지와와의 연관성, 그리고 내부공간의 결정을 통해 형태를 구성하며, 특히 빛과 공간의 생생한 상호작용을 염두에 둬으로써 핀란드 현대 교회건축의 특징을 대변하는 레이비스케(Juha Leiviskä)는 Myyrmäki Church(Vantaa, 1984)와 Church of St. John(Mämnistö, 1992)에서 역동성이 넘치는 공간과 빛의 탁월한 이용, 그리고 부지와 지형에 대한 예민한 대응에서 도출되는 개성적인 형태를 보여주며, 감추어진 광원에 의해 생기는 깊이 있는 환영은 벽의 평탄한 특질을 강조하



<그림 6> J. Leiviskä, St. John and Parish Center, Mämnistö, 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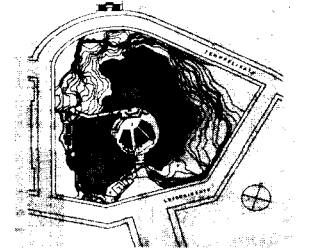
면서 비물질화되고 영성화된 표현적 공간을 형성한다. 그의 교회건축을 특징짓는 요소로서 판을 연상하게 하는 다양한 종류의 벽은 이를 통하여 공간이 갖는 각 요소들을 분류하는 과정을 이루는 것인데, 즉 크고 작은, 개방되고 폐쇄된, 높고 낮은, 그리고

밝고 어두운 공간들의 살아있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창출하여 내는 통일성은 바로크의 공간적 풍성함과 북극의 냉정한 역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주위환경의 존중과 자연적 재료의 적용, 유기적 형태로 대변되는 핀란드의 교회건축은 티모와 투오모 수오말라이넨에 (Timo and Tuomo Suomalainen)의 TempPELLIAUKIO 교



<그림 7> Timo & Tuomo Suomalainen, TempPELLIAUKIO 교회, Helsinki, 1969



<그림 8> TempPELLIAUKIO 교회 평면도

회(Helsinki, 1969)에서 언덕의 암반을 절삭하여 반지하에 교회를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돔을 구축함으로써 암벽의 자연스러운 노출과 대지의 자연적 경관을 조화되게 유지하였으며, 빛은 돔을 지탱하는 보의 직선과 대비를 이루어 디자인 요소로 작용하여 환상성을 자아낸다.

한편 전통적 벽돌을 사용하여 유럽의 합리주의에 대한 기능주의적인 전통을 비판하면서 서정적인 건축을 강조하는 스웨덴의 레베렌츠(Sigurd Lewerentz)는 마커스 교회(Markus Church, Stockholm, 1960)에서 절제미학을 구사하여 영속성과 시적 감수성을 표출하고 있다.



<그림 9> S. Lewerentz, 마커스 교회, Stockholm, 1960

또한 문화와 장인정신을 외경하여 재료에 내재된 성질을 존중하면서 '건물의 내부란 개인적 취향을 반영하지만 외부

는 공공의 것이기에 지역문화의 연속적인 일부여야 한다'고 인식한⁸⁾ 셀싱(P. Celsing)은 St. Thomas Church (Stockholm, 1960)와 Nacksta Church(1968)에서 중세 유럽이나 스웨덴의 문화적 전통성에의 회귀성을 주장하는데, 건축의 기본적인 요소인 볼륨, 스페이스, 표면, 선과 빛에 대한 심오한 이해를 보여주며 스웨덴의 시적 건축에 대한 전통과 방향을 시사해준다.⁹⁾

모더니즘의 합리주의적 정신과 유기적 건축의 원리인 북극적 휴머니즘, 즉 자연주의 정신의 통합을 추구한 윗존(Jørn Utzon)은 Bagsværd 교회당(Copenhagen, 1976)에서 대지를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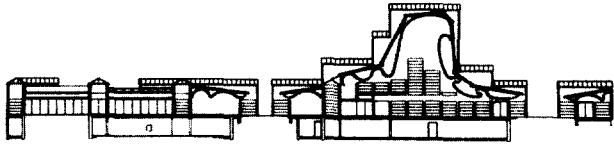
8) 이러한 인식은 아돌프 루스 A. Loos로부터 기인한다. Walmsley, Dominique, Modern Architecture Reconsidered-Peter Celsing, A+U 8502, p.115.

9) 정영수, op. cit., p.118.



<그림 10> J. Utzon, Bagsvaerd 교회당, Copenhagen, 1976

식하고 지역적 전통을 존중하려는 의도와, 반면에 공업재료의 사용, 조립화 같은 근대적 방식을 구사하려는 의도를 조화시키고 있으며 과거 교회의 도상(iconography)을 맹종하지 않고 세속 시대에 현대적인 교회의 창조에 성공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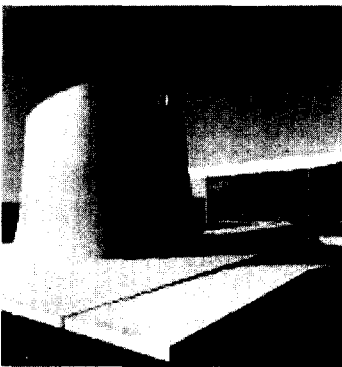
<그림 11> Bagsvaerd 교회당 단면도

있다. 한편 내부 천장은 인간과 절대자 사이의 영적 유한성을 규정짓는 구름아래의 인간들을 위한 공간을 표현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준다.¹⁰⁾

결국, 신앙적 표현을 진실성, 순수성, 유기성 속에 담아내며 종교건축의 근본테마에 접근한 스칸디나비아 교회건축에서 도출된 일관성은 본질적으로 교회건축 형태의 어휘에 대한 인간화·토착화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모더니즘의 어휘가 열대지역에 부합하는 변안과정을 통해 발전된 남아메리카에서도 유사하게 표현된다.

3.3. 라틴아메리카의 교회건축 분석

남아메리카에서 교회건축은 환상적이고 시적인 감성과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형식에 접근하려는 이성적인 사고의 융합 속에서 고양된다.¹¹⁾ 과감한 형태적 표현과 서정적인 내용, 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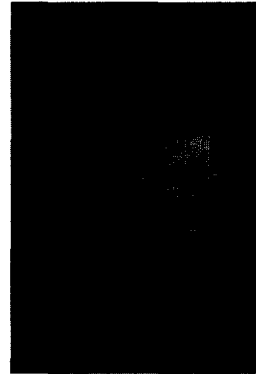


<그림 12> O. Niemeyer, Chapel at President's Palace, Brasilia, 1958

식민주의의 정신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지역적 특성의 함축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브라질¹²⁾의 니마이어(O. Niemeyer)는 성 프란시스코 교회(Chapel of St Francis of Assisi, Brazil, 1943)에서 지역특유의 낙천성과 지형을 형상화한 포물선 형태를 표현함으로써 극적인 신비성을 자아내며, Chapel at

President's Palace(Brasilia, 1958)에서는 단순함과 공허함으로 인도하는 원추형을 적용함으로써 친근하고 강렬하며, 명암간의 상호작용이 발산되는 전례없는 성스러운 공간을 창출한다.

이와 같이 제한된 건축어휘 안에서 상징적인 내용을 실현하고자 하는 남미 교회건축의 특성은 건축을 미적·정서적 의미를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한¹³⁾ 바라간(L. Barragan)에게서도 나타난다. 근대건축운동과 전통적 원칙 사이의 모순적인 상황을 중재하기 위하여 식민지 시대의 단순한 전통 형태를 추상적으로



<그림 13> L. Barragan, Colonia Tlalpan Chapel, Mexico city, 1955

로 재정립한 바라간은 Colonia Tlalpan Chapel(Mexico City, 1955)에서 기초적인 기하학적 형태로 된 단순한 건축어휘를 자신의 초현실적 구성의 정수로 자연과 조화롭게 결합시키는 한편, 색채와 조명 효과를 이용한 풍부하고 암시적인 분위기, 초월적 감수성을 자아내는데, 이는 레고레타 (Ricardo Legorreta)의 마나구아 성당(Metropolitan Cathedral of Managua, Nicaragua 1993)으로 전수된다.

4. 지역주의적 교회건축의 표현특성

4.1. 인지-행태적인 유기성 표현

지역주의 교회건축에 있어서의 공간과 형태는 인간의 지각과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한다. 즉 내부의 기능과 공간을 충분히 검토하여 프로그램으로부터 도출된 매스의 조형적 처리를 중시함과 함께, 결코 즉물적·기능적 사고에 경도되지 않는 전통적 요소를 서로 연관시키고 합리적 요소와 비합리적 요소를 통합함으로써 인간의 심리적 속성을 고려한 유기적 개념을 창출하여 낸다. 주변환경과의 조화나 융합, 장소성의 존중, 토착적 자연재료의 도입과 공간과 형태를 경험하는 인간의 신체 중심성에 대한 인식은 교회건축에 있어서 인간성의 수용이라는 요구를 반영한다. 이러한 형식은 그 지역과 환경에서 심상(心象)을 형성해 온 인간의 신체성에 대한 회복을 전제로 한 것이며, '인간이 개입된 건축'¹⁴⁾을 추구함으로써 '신이 거하는 주거'가 아닌 '신을 믿는 인간의 주거'로서의 본질적인 교회건축의 의미를 제공한다. 결국, 교회의 건축형태는 건축가에 의해 선택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형태 자체의 존재적 본성을 지니

10)Antoniades, Anthony C., Poetics of Architecture-Theory of Design, 건축시학-창조성과 디자인 이론, 김경준 譯, 1994, p.38.

11)Heathcote, Edwin, op. cit., p.58.

12)Lampugnani, V. M., Architectur und Stadtebau des 20. J ahrhundert, 현대건축의 조류, 이호정 譯, 태림문화사, 1994, p.50.

13)Heathcote, Edwin, op. cit., p.58.

14)Raskin, E., Architecturally Speaking, Bloch Publishing Company, New York, 1981, p.53.

며 인간활동을 포용하는 유기적 실체로서, 자연의 형태와 재료를 반영함으로써 인간을 그들의 자연환경에 통합할 수 있다고 보는 교회건축의 토착화로 귀결된다 할 수 있다. 지역주의 교회건축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토착화의 구현은 주변 환경의 맥락에 대응하도록 형태, 색채, 재료 등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이루어지며, 또한 내부공간에서도 보편적인 종교적 감흥과 숭고함을 고취하는 데에 주력하지 않고 공간의 특성이 인간적으로 용이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처리된다.

지리적 사정에 따른 빛에 대한 예민한 반응은 북구의 교회건축에서 백색의 사용과 적극적인 채광이 실내공간 디자인에 있어서 고려가 되는데 이는 알토의 보크세니스카 교회(1959)와 세이나요키 교회(1960), 레이비스케의 Myyrmäki Church(Vantaa, 1984)와 Church of St. John(Männistö, 1992), 웃존의 Bagsværd 교회당(Copenhagen, 1976)에서 잘 나타나며, 특히 자연재료에 대한 선호와 그 이용법의 발달은 중세 장인적 기예의 존속을 입증하는 것으로 알토의 건축에서 다양한 목재의 사용은 핀란드의 전통적 재료를 건축의 표현재료로서 콘크리트의 가치이상으로 목재의 가치를 재인식하도록 유도했다. 근대기술과 표준화라는 과제를 장인정신과 결합시킨 디자인 방법으로 나타난 그의 장식의 기능은 관습적인 장식의 사용으로 일상수준에서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것으로 신성함이 아닌 인간 중심적인 장식이라 할 수 있다.¹⁵⁾



<그림 14> J. Leiviskä, Myyrmäki Church, Vantaa, 1984

인 소재가 되는 것은 침착한 질료와 누적된 시간성의 표현으로 유효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니마이어는 성 프란시스코 교회(Brazil, 1943)에서 외부 벽을 포르투갈 식민지의 영향을 반영해주는 전통적 타일의 벽화로 장식함으로써¹⁶⁾ 지역특유의 토착화를 이루며, 바라간의 Colonia Tlalpan Chapel(Mexico City, 1955)에서 나타나는 재료의 단순함은 아마도 수녀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이겠지만, 지역의 기술적 낙후성 속에 단순한 구조, 소재의 한정을 극복하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 드러나는

15)D. Porphyrios는 알토의 모든 장식적 작품에는 Bricolage라는 비잔틴 전통, 즉 바람직한 효과를 이루기 위해 어떠한 재료들도 이용하는 능력의 수용이 있다고 언급했다.

16)Heathcote, Edwin, op. cit., p.58.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적 관습의 표현을 통해 의도되는 유기적 토착화는 인간과 건축 상호간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며, 인간의 유기적인 움직임이 대지의 형상화에 통합되기 위해 건물의 주변환경을 인간적 척도에 적합하게 형성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형식은 알토와 레이비스케의 교회건축에서 나타나듯이 대지와와의 관계 즉, 부지 형상이나 경관에 따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자연스러운 형태, 핀란드의 평탄한 평원과 솟아오른 숲을 연상시키는 수직 수평 요소의 은유적 형상을 언급할 수 있으며, 또한 전통적 감수성에서 기인하는 절제된 재료와 단순한 형태, 색과 조명에 대한 효과를 이용하여 풍부하고 암시적인 분위기로 자아내는 바라간과, 기존의 지역적 지형 상태와 특유의 분위기에 대한 지각력을 바탕으로 한 시자의 Marco de Canavezes 교회(Portugal, 1996)가 주변경관과 연관 짓는 데에서 잘 드러난다. 결국 지역주의적 교회건축의 인지-행태적인 유기성 표현형식은 지역 경관에 대한 긴장감 넘치는 대응, 전통적 재료와 수공예, 빛의 미묘함에 대한 존중으로 규정되며, 시각적이기보다는 촉각적이고, 형태적이기보다는 구축적인 개념을 통해 토착화된 교회건축의 지역적 특수성을 보편성으로까지 확대한다

<표 1> 인지 행태적인 유기성 표현분석

		인지 행태적인 유기성 표현	
개	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성의 수용-신을 믿는 인간의 주거로서의 교회. ● 주변 환경과의 융합, 장소성의 존중, 전통적 재료의 도입. ● 지역적 관습의 표현을 통한 유기적 토착화 실현. 	
		건축가	작 품
사	레	▷A. Aalto	· Seinäjoki 교회 (1960)
		▷K. & H. Siren	· Otaniemi 예배당(1957)
		▷J. Leiviskä	· St. John 교회 (1992)
		▷T&T Suomalainen	· Tempelliaukio 교회(1969)
		▷S. Lewerentz	· Markus 교회 (1960)
		▷J. Utzon	· Bagsværd 교회 (1976)
		▷L. Barragan	· Colonia Tlalpan 예배당(1955)
		분석 요지	
		· 공간과 형태의 인위적 규모창출	
		· 자연경관을 반영한 지역적 색채	
		· 부지와 지형에 대한 순응 및 유기적 재료 사용	
		· 추위환경 존중, 자연적 재료적용, 유기적 형태	
		· 재료의 내성 존중, 절제 미학.	
		· 지역성과 전통성 존중	
		· 자연과의 조화 및 전통적 형태의 추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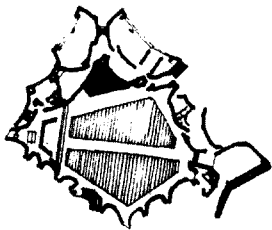
4.2. 전통적 형태의 직해

교회건축의 토착화를 구체화시키는 형태적 형식으로 전통적 형태의 직해¹⁷⁾는 지방특유의 전통적 형태언어요소를 즐겨 부활

17)명확한 개념에 의해 만들어진 명확한 이미지의 지시대상에 의한 도방을 의미하며 직해성의 문제에 관해 조심스런 태도를 보일 경우, 창조성에 이르는 수단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직해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시각적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의미적 측면이다. 아르하임 R. Arnheim은 이러한 측면을 '보이는 것(as it looks)'은 '존재하는 것

시킴으로써 건축에 사회성과 심리학적 의미를 갖게 하도록 하는 형식이다. 개연적으로 기존의 건축과 연속성을 이루려는 디자인이 이루어지지만 그것은 기존의 것을 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 구도에서 가능한 개별성을 찾는 것으로서 재료와 규모와 수사가 감성적으로 연속성을 이룬다. 즉, 암시와 연상, 인습을 전제로 한 은유가 수반된 비유를 통해서 형성되는 기억과 경험 등의 개념들은 역사화 된 형태언어의 사용을 통해서 얻어지는 인간성의 축적된 경험에 대한 은유적 언급이고 의미를 소통하고 연상을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의도된 장치들이며¹⁸⁾, 결국 장소성의 의미를 재생시키려는 의도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알토의 관점은 역사적 형태를 자유로이 해석하는 민족적 낭만주의와 20세기 초반에 시작된 근대 핀란드 건축의 정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인데, 과거와 현재를 나란히 병치시키거나 고전적 이상을 낭만적 암시와 결합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¹⁹⁾ 보크세니스카 교회종탑의 수직적 요소는 주변의 자작나무 숲과 조화를 이루면서 교회의 장엄함을 보여주는데 이는 핀란드 국경지방인 Imatra의 주변 감시탑의 형태와 규모에서 추출된 것으로, 요새의 방어적 이미지가 교회건축의 구원적 의미와 연결된 은유라 할 수 있다.



IXOXZ

<그림 15> R. Pietilä, 칼레바 교회 평면도, Tampere, 1966

람의 시각으로부터 조심스럽게 은폐하려는 것²¹⁾처럼 보이는 것이다.

표현주의적인 피라미드 형태의 Magnus Poulsson의 Church

(as it is)'으로 언급하고 있다. Arnheim, R., *The Dynamics of Architectural Form*, 건축의 역학적 형태, 손승광 譯, 세진사, 1994, pp.136~172, 말뜻 그대로 해석해보면, '보이는 것(the look)'은 '존재하는 것(the is)'과 겹친다. 즉, 시각적인 형태는 존재하는 것의 분명한 표현인 것이다. Antoniadis, Anthony C., op. cit., pp.175~177.

18)길성호, op. cit., p.2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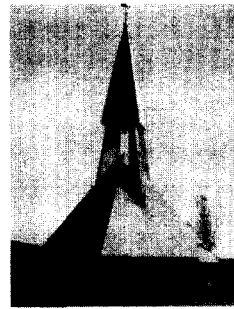
19)Quantrill, Malcolm, *Alvar Aalto-A Critical Study*, New Amsterdam Books, 1983.

20)Jesus Christ Son of God, Savior의 두문자.

21)Antoniades, Anthony C., op. cit., p.40.

at Gravberget(1956)는 노르웨이 지역의 전통적 목재 교회의 형태와 종탑, 주위의 지형을 고려하여 재해석한 것이며, 셸싱의 Church at Nacksta(1968)에서 표현된 보트 형태는 인생항로를 나타내는 상징체로서 스칸디나비아의 전통을 지속시킨다. 또한 독립된 종탑은 교회본당과 분리되어 서있는 스웨덴 전통을 상기시키는 것으로서 이러한 개념을 더욱 강조하며²²⁾, 영적·정신적 분위기의 통합을 연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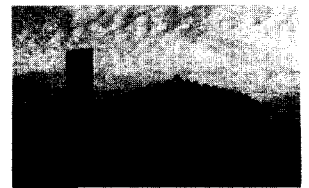
한편 니마이어의 St. Francisco 교회(1943)에서 적용된 곡선은 브라질의 바로크 건축에서 인용된 것으로서²³⁾ 억제되지 않은 자연스러움으로 표현되었다. 여기서 "천지만물은 곡선으로 이루어졌다"는 세계관이 표출된 그의 조형언어²⁴⁾는 결국 가우디의 유기성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가우디가 포물선을 이용한 것이 표현주의적인 자질 때문이 아니라 구조적인 합리성에 기인한 것이듯이 니마이어에게 있어서 곡선 구조물의 적용은



<그림 16> M. Poulsson, Church at Gravberget, 1956



<그림 17> O. Niemeyer, St. Francisco교회, Pampulha, 1943



<그림 18> R. Legorreta, Metropolitan Cathedral of Managua, Nicaragua, 1993

단지 심미적 관점에서 직관적으로 표출된 것이라기보다는 이성 주의적인 것이다. 또한 레고레타(R. Legorreta)의 The Metropolitan

<표 2> 전통적 형태의 직해 분석

		전통적 형태의 직해		
개	년	● 지역 특유의 전통적 형태 언어요소 부활.		
		● 기존 건축과의 연속성 추구.		
사	레	● 암시와 연상, 인습을 전제로 한 은유가 수반된 비유.		
		건축가	작 품	분석 요 지
		▷A. Aalto	· Vuoksenmäski 교회(1959)	· 전통적인 형태언어사용. (불특정한 다각형의 연속 - 전통의 성(城)에서 유출)
		▷R. Pietilä	· Kaleva 교회(1966)	· 고딕의 수직성 및 바로크의 역동성 은유적 평면형태.(물고기 모양)
		▷M. Poulsson	· Gravberget 교회(1956)	· 전통적 종탑의 목재 교회 형태.
		▷P. Celsing	· Nacksta 교회(1968)	· 전통성과 전통으로의 회귀성 시사.
		▷O. Niemeyer	· St. Francisco 교회(1943)	· 브라질의 바로크 건축에서 인용된 형태.
		▷R. Legorreta	· Managua Cathedral (1993)	· 니카라과의 스페인적 전통 수용.

22)Walmsley, Dominique, *Modern Architecture Reconsidered*-Peter Ceasing, A+U 8502, p.118.

23)Lampugnani, V. M., op. cit., p.256.

24)Heathcote, Edwin, op. cit., p.58.

Cathedral of Managua(1993)에서 표현된 '모호하게 회교적'인 디자인은 니카라과의 스페인적 전통을 수용한 것으로서 그라나다의 알함브라 궁전과 유사하게 표현되었다.

5. 결론

서양 건축의 역사를 주도하였던 교회건축은 근대이후 더 이상 그 시대의 양식을 대변하지 않게 되었으며 이제는 현대건축의 복잡한 흐름 가운데 하나의 기능을 가진 건축물로 인식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독교의 전파와 토착화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주의적 교회건축은 현대 교회건축의 표현을 나타내는 데에 하나의 특성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것을 세부적으로 인간의 지각과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한 인지-행태적인 유기성의 표현과 토착화를 구체화시키는 전통적 형태의 직해로 구분할 수 있다.

인지-행태적인 유기성의 표현은 인간성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교회에 대해 신을 믿는 인간의 주거로서 인식하고 주변환경과의 융합, 장소성의 존중, 전통적 재료를 도입하여 지역적 관습의 표현을 통한 유기적 토착화를 실현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 형태의 직해는 지역 특유의 전통적인 형태언어를 요소적으로 사용하며 기존에 있는 건축물들과 연속성을 추구하고 이러한 것들은 암시와 연상, 인습을 전제로 한 은유적인 표현을 나타내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표현적 특성들은 기독교 신앙의 토착화 및 지역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며 정의될 수 없는 현대의 교회건축 양식에 대한 하나의 표현적 특성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성호, 현대건축 사고론, 시공문화사, 1999.
2. Heathcote, Edwin, Church Builders AD Academy Editions, 1997.
3. Raskin, E., Architecturally Speaking, Bloch Publishing Company, New York, 1981.
4. Quantrill, Malcolm, Alvar Aalto-A Critical Study, New Amsterdam Books, 1983.
5. Antoniadis, Anthony C., Poetics of Architecture-Theory of Design, 건축 시학-창조성과 디자인 이론, 김경준 譯, 1994.
6. Arnheim, R., The Dynamics of Architectural Form, 건축의 역학적 형태, 손승광 譯, 세진사, 1994.
7. Frampton, K., Modern Architecture-A Critical History, 현대 건축사 (II), 정영철·윤재희 譯, 세진사, 1992.
8. Lampugnani, V. M., Architektur und Stadtbau des 20. J ahrhundert, 현대건축의 조류, 이호정 譯, 태림문화사, 1994.
9. 정영수, 북구 근대건축의 거장-레니 피에탈레, 이상건축 9511.
10. Walmsley, Dominique, Modern Architecture Reconsidered-Peter Celsing, A+U 8502.

<접수 : 2001. 10. 31>